

## 결핍과 그리움

— 황순원의 작품집 『눈』 —

정수현\*

1. 서론
2. 부재하는 어머니
3. 어머니라는 이름의 악마
4. 어머니에게 안기기
5. 결론

### 초록

이 글은 모성이 황순원 문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의 첫 작품집 『눈』을 분석한 것이다. 황순원은 작품집 『눈』을 통해 모성이 결핍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치밀하게 묘사해 나가고 있다. 『눈』에 실린 13편의 작품들에는 모두 심신이 병들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이 펼쳐가는 사랑은 불균형하며 왜곡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탐색해 들어가면 거기에는 항상 모성과의 불균형적인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황순원 작품에서 애정의 문제는 항상 모성과 접맥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띠는데 이것은 황순원 문학의 뚜렷한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집 『눈』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은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모성을 잃은 악마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은 기괴하고 추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작가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작품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더욱더 절실하게 지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황순원은 『눈』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훼손된 세계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성에 감싸임뿐이라

\* 연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 1. 서론

작품집 『눈』(1940)(간행시의 표제 『황순원 단편집』)은 황순원의 첫 번째 소설작품집으로 이후의 작가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눈』에 실린 13편의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은 황순원 문학의 원적지를 찾는 작업이 될 것이며, 또한 작가의 방대한 문학적 업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세우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집 『눈』을 개관하여 보면 그 작품 편향이 이후 황순원의 문학세계와는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토속적 풍습과 인정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이후의 작품 경향과는 달리 『눈』에서는 「닭제」와 같은 소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적 소재와 서구적 문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동하는 『눈』에 실린 작품들에 대해 정지용류의 경박한 모더니즘이라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sup>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첫 작품집 『눈』에서부터 모성의 세계에 대한 황순원의 끈질긴 관심이 작품 전반에 여러 가지 형태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모성의 탐구는 황순원의 작품세계에서 초기의 단편소설에서부터 후기의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소설적 주제이다. 작가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모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 의식과 문학적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모성을 하나의 일관된 의미로 추출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황순원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절대적 미와 선의 표상으로 혹은 악과 추의 화신으로

---

1) 이동하, 「전통과 설화성의 세계」, 『물음과 믿음 사이』(민음사, 1989), p.98.

양극단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모성이 황순원 문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의 첫 작품집 『눈』에 실린 작품들을 분석하여, 이 작품들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이며, 그 특성이 어떻게 모성과 관련을 맺고 황순원적인 특색을 드러내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모성은 이후의 작품세계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탐구되는 근본적 문제이므로 황순원 문학의 본령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2. 부재하는 어머니

작품집 『눈』에 실린 단편소설 13편을 분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작품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폐병에 걸려 늘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허수아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황순원 소설의 전형적인 면모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보영은 황순원의 첫 단편집에 수록된 「허수아비」가 작가의 출신환경, 체질, 기질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상적 발전까지도 다각도로 예시한 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라고 보았다.<sup>2)</sup> 주인공 준근은 시골지주의 아들로서 서울 유학생이지만 폐병환자이다. 또한 자신의 애인 남숙에게 ‘우리는 우리 대에서 마지막으로 되는 게 옳다’고 하며 피임조절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육체 못지 않게 정신도 병들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늘 죽음에의 위협을 느끼며 자신을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 같다고 느낀다. 매사에 자신이 없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들어 가는 심신을 이끌고 고향에 온 준근에게

---

2)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황순원연구』(문학과지성사, 1985), p.36.

어릴 적 소꿉동무 명주와 극서의 생명력 넘치는 삶은 그의 권태로운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준근은 명주의 ‘두꺼운 가슴과 검붉은 볼’에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매혹되지만 다가서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다가 결국 명주와 극서의 결합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게 된다.

준근은 무덤 사이에 선 채 그제야 알 수 있을만하게 형클어진 고구마밭과 거기 나란히 섰는 명주와 극서에게로 눈을 돌리며 아름다운 풍경이나 대한 듯이 비 머금은 바람을 맞으며 얼굴 전체에 만족한 웃음을 띠어왔다.<sup>3)</sup>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준근과 명주의 이미지는 황순원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병약하고 섬세한 남자주인공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여주인공의 대립적 인물구조의 모델이다. 준근처럼 황순원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모두 심신이 건강하지 못하며 소극적이다. 그들은 새로운 문물을 접했을 때나 건강하고 적극적인 여성을 대할 때 모두가 예외 없이 떨거나 현기증을 느낀다. 이렇게 ‘황순원 초기 단편의 기초음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의 내용을 뚜렷이 분석하지 못하는 시기의 심적 동요인 떨림으로 나타난다.’<sup>4)</sup> 이 떨림은 특히 초기단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 이후로도 이 떨림은 어지럼증, 현기증, 흔들림, 후들거림 등으로 변용되어 황순원의 전 작품에서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눈」에서도 소녀는 적극적이고 건강하지만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병들어 있다. 병든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 그리고 그녀에게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지만 소심증으로 끝내 아무런 애정표현도 하지 못하는 가정교사 태섭 등이다. 태섭은 풍만한 육체를 가진 발랄한 소녀에게 끌리면서도 그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몸을 부르르 떨거나 교과서를 막 집어들어 뒤적이는’ 소극적 회피의 태도를

3) 「허수아비」, 『눈/ 기러기』(문학과지성사, 1985), p.41.

4) 이부순, 「황순원 단편소설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41.

보인다.

소녀가 등진 벽에는 이제 바로 스타트하려는 단거리 선수의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앞으로 쏠리는 몸과 땅을 차려는 발끝과의 아슬아슬한 균형, 그리고 한 초점을 강렬히 노리고 있는 눈, 이러한 런닝 선수의 품을 바라보면서 태섭은 소녀의 두꺼운 가슴이 테이프를 걸치고 골인하여 테이프 끝을 푸르르 날리는 장면을 머리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여윈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태섭은 이번에는 다리를 한옆으로 모아 눕히고 앉았던 소녀의 풍만한 무릎으로 시선을 옮기다가 급히 거두면서 가까이 있는 교과서 하나를 막 집어 들고 뒤적이기 시작했다.<sup>5)</sup>

태섭은 환상 속에서만 소녀에게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따름이고 실제로는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보내고 그간의 '풍랑'이 일던 심정이 고요해지자 안정된 심정을 갖는다.

소녀는 악마, 악마, 하고 두어 번 부르짖고 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네는 행복해 보이겠다고 소리치고는 빛나는 눈에 눈물을 내뿜으며 풍랑이 인바다 무늬가 있는 치마를 물결 지우면서 도어를 밀고 나가버렸다. 아파트의 유난히 잔 층계를 소녀가 몇 개씩 한꺼번에 뛰어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태섭은 무언가 안정된 심정으로 다시 물뿌리개를 들어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하였다.<sup>6)</sup>

준근이나 태섭과 같은 소극적이고 병약한 남자주인공들과 달리 여자주인공들은 명주나 소녀처럼 건강한 육체를 지녔으며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는 파격성을 떨 정도로 사랑에도 적극적이다. 병든 어머니를 버리고 사랑을 좇아 집을 나가는 「늬」의 소녀와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애인과의 도피여행을 떠나려는 「피아노가 있는 가을」의 종숙 등은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기존의 조건도 깨뜨릴 정도로 과감한 성

---

5) 「늬」, p.13.

6) 「늬」, p.25.

격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작가가 작품집 『눈』 속에서 그려내는 사랑의 모습은 대부분 건강하고 능동적인 여자와 그녀 앞에서 자꾸만 떨고만 있는 여위고 병든 남자의 구도이다. 이러한 두 남녀가 빚어내는 사랑의 모습은 늘 위태롭고 어긋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나가는 비」에서 섭이와 연희의 관계, 「배역들」에서 조훈과 명애의 관계 등은 모두 건강한 남녀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어딘가 불균형하고 단절된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관계의 원인을 탐색해 들어가면 그곳에는 항상 어머니와의 불구적인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장현숙은 황순원 문학에 나타난 남녀의 애정의 양상은 반드시 모성의 문제와 접맥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남주인공들이 여성에게 여성만이 아닌 모성까지를 추구했던 것은 황순원 문학에 있어서 한 뚜렷한 특질로 파악된다<sup>7)</sup>고 하였다.

「지나가는 비」는 주인공의 단절된 남녀관계가 훼손된 모성세계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섭이는 술집 접대부인 연희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이러한 섭이의 태도는 그가 사생아였다는 암시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그가 여학교 교원이라는 취직자리도 사양하고 연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타인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섭이가 ‘육체적으로 헐어갈수록 정신만은 깨끗할 수 있는 여자, 육체를 거쳐 다음에 정신적인 사랑으로 들어가는 여자’를 찾아 헤메는 것은 육체를 상징하는 여성보다는 정신을 상징하는 모성을 애타게 갈구하는 그의 심리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왜곡된 인간관계는 남녀뿐만 아니라 친구나 부모자식사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된다. 「거리의 부사」에서는 고향을 떠나

---

7) 장현숙, 「황순원 초기작품연구-단편집 『눈』을 중심으로」, 『경원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7집(1986).

있으면서 자신을 거지와 같은 처지로 인식하고 아무와도 제대로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거지가 그냥 떴다. 젖은 얼굴로 승구는 거지 옆에 가 앉는다. 이제는 얼굴만한 햇볕도 새지 않는다. 승구도 거지처럼 떨기 시작한다.<sup>8)</sup>

메마른 이국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은 고향을 떠나 마음 붙일 곳 없이 떠도는 유학생인 승구가 느끼는 불안증, 그리고 주위의 상황과 인물들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된 미묘한 떨림들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단절된 인간관계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풍속」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장손인 주인공이 거리를 배회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의 방황은 애정이 결핍된 가족들과의 불화에서 기인한다. 늘 어지럽고 피곤한 주인공은 천장에서 줄을 치는 거미를 쳐다보며 아내에게 ‘거미가 제 에미 잡아먹는 거 알아? 그래 저런 거미 많이 불에 귀 먹으면 어지럼증두 몇구 살두 찢다는데, 알아?’<sup>9)</sup>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제 에미를 잡아먹는 거미와 같은 존재로 자조적으로 표현한다. 이 작품은 결국 진정한 애정이 결여된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또 다시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속처럼 세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집 『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결핍된 인간들로 그려져 있다. 그 결핍은 육체의 질병으로 혹은 정신적 부적응으로 발현한다. 젊은이들의 무력한 권태증, 방황, 거리배회, 내면세계의 불안, 사생아의식,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조속성과 영악함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어머니가 부재한다는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8) 「거리의 부사」, p.51.

9) 「풍속」, p.150.

### 3. 어머니라는 이름의 악마

작품집 『늬』에서 작가의 눈길은 늘 여성에게 쏠려 있기는 하나 그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세상의 어머니들에게서 흔히 보는 자애로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파괴적 정열을 내재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들은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난 어머니이거나, 아이를 내다버리는 어머니들이다. 이와 같이 악마라 불리울 수 있을 만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어머니상이 등장하는 것은 황순원 문학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인물들에게 항상 헌신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만을 투영시키는 작가 황순원에게 모성을 상실한 여성은 악마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추어질 뿐이다. 따라서 작가는 모성을 내던지고 쾌락을 원하는 어머니에게 가장 추한 형상을 부여한다. 『늬』의 어머니 「갈대」에서의 소녀 「소라」에서의 월이 「배역들」에서 점란 「피아노가 있는 가을」의 종숙 「사마귀」의 주인집 모녀 등등은 한결같이 악마적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들은 『늬』에서 소녀의 어머니처럼 “우리 모녀 단둘이 살다가 죽자고 다짐”시키는 편집적인 모성을 지니고 있거나 「사마귀」에서처럼 아들의 “혀를 당기워 병어리로 만들어 버린”, 어머니라 불리울 수 없는 어머니들이다. 이러한 추함과 악,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는 「사마귀」에서 결집되어 나타난다.

「사마귀」는 네 명의 부정적 모성상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서로에 대해 사마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모성이 결핍된 세계의 비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모성애의 결핍이 낳은 연쇄적 비극을 제 새끼를 잡아먹던가 제 어미를 잡아먹는 사마귀라는 상징물으로써 비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사마귀와 같은 인간관계는 먼저 주인마누라와 젊은 여인사이에서 시작하고 이러한 사마귀적 관계는 다시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빚어지는 젊은 여인과 계집애의 갈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서로가 서로를 죽게



만드는 존재로서의 사마귀와 같은 대립관계는 다시 계집애와 병어리인 사내애에게로까지 확대된다. 황순원은 작품에서 모성을 결핍한 여성은 악마에 다름 아니고 이러한 모성 밑에서 자라나는 동심은 섬뜩해지고 있으며 남성들은 늘 사생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인간세상은 황폐해지고 순식간에 죽음으로 가득차버린다는 것이다.

계집애가 주인마누라라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이집 젊은 여인이 밖에 나가 묵는 동안 만이다. 젊은 여인이 돌아온 뒤에는 할머니란 말 대신에 어머니란 말로 바뀐다. 현이 몇 살이나고 물을 적마다 한 손 손가락을 다 펴보이면서도 입으로는 여섯이라고 하는 이 어린 계집애가 이것만은 어겨본 적이 없다. 계집애가 언제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인형에게 뿐이다.<sup>10)</sup>

주인마누라와 계집아이는 젊은 여인이 매춘을 해서 버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들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결속된 가정의 의미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보다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더 귀여워하고 소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계집애의 어머니는 한 번도 아이에게 애정표현을 해준 적이 없다.

젊은 여인이 계집애를 안으려고 팔을 내면 것을 현은 처음 보는 것이다. 계집애가 어리둥절해 젊은 여인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러다가 누가 자기 뒤에 있거나 한 것처럼 돌아본다. 아닌게 아니라 그때 계집애 뒤에서 고양이가 달려와 젊은 여인에게 안긴 것이다. 젊은 여인은 고양이에게 팔을 내밀었음에 틀림없었다. 젊은 여인은 고양이를 불안하며 오오 내 딸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듯했다.<sup>11)</sup>

어머니에 의해서 거부되고 단절된 동심은 타인에게도 파괴적 성향을

---

10) 「사마귀」, p.131.

11) 「사마귀」, p.134.

보이며 섬뜩한 놀이를 즐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두 아이, 매춘부를 어머니로 둔 계집애와 아편쟁이를 부모로 둔 사내에는 비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니고 있지 않고 병적이고 불구적인 행동양태를 보일 뿐이다.

지금 사내에는 곱게 다듬은 사금파리에 톱밥을 담아 토끼 새끼 앞에 먹으라고 내놓는 참이다 토끼 새끼는 그러나 꿈쩍도 않는다. 죽어있다. 사내에는 계집애와 안 노는 동안 토끼 새끼를 한 마리 한 마리 몰래 꺼내다가 이 놀음을 했던 말인가.<sup>12)</sup>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는 사내에게는 계집애마저 놀아주지 않자 몰래 토끼새끼를 가져다 어머니 대용으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이 살고 있는 하숙집의 토끼새끼는 매일매일 죽어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하숙집의 불모성은 인간세계 전체의 불모성으로 확산되고, 사내에는 모성애를 갈구하는 외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모성애의 결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인간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또한 부정적 모성상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모성애가 얼마나 인간에게 귀중한 것이며 근원적인 사랑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죽음과 불모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현실을 포착한 또 다른 작품의 예로는 「갈대」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소녀는 묘지기 할아버지, 아편쟁이 아버지, 집 나간 어머니 등으로 표상되는 가난하고 황폐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 그녀가 처해 있는 공간은 썩은 웅덩이와 움막이 있는 공터이다. 썩은 웅덩이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비리먹은 개가 뼈다귀를 물고 돌아다닌다. 공터 끝 움막에는 소녀와 할아버지, 아편 중독자인 아버지가 산다. 소녀의 아버지는 아편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고 소

12) 「사마귀」, p.141.

너는 다리에 난 부스럼을 긁으며 돌아다닌다.

저 개가 이제 해골 백 개만 먹으면 사람 된단다. 여기 조금만 파면 뼈다귀가 얼마든지 있는데 뭐 전엔 예가 무덤이잖아. 저 웅덩이두 무덤 자리구 우리 할아버지가 묘지기였어. 요새두 우리 할아버진 밤마다 엘돌군 한단다 이제 얼마 있으며 여계 큰 집들이 가득 들어온다나 귀신 막 나와 다닐 거야 우리 어머닌 예서 귀신 들러서 도망가구 우리 아버진 또 귀신한테 홀려서 죽어간단다.<sup>13)</sup>

「갈대」에서 그려지고 있는 세계는 사랑이 완전하게 고갈된 메마른 죽음의 세계이다. 어린 소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덤가라는 죽음의 장소이다. 그곳은 미쳐서 가출한 어머니와 아편쟁이인 아버지 묘지기인 할아버지 그리고 무덤가를 맴도는 미친 여자와 병에 걸려 비틀거리는 개, 그 개가 물고 다니는 사람 뼈다귀 등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러한 섬뜩한 불모의 환경 속에서 소녀는 조숙스러운 웃음을 웃으며 성적인 암시를 주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녀의 모습은 이 작품에서 풍겨나오는 기괴하고 추한 느낌을 한층 더 선명하게 해줄 뿐 아니라 동심의 순수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타락한 세계에 대한 비애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소녀는 거리에서 달고 온 또 다른 란도셀 멘 소년에게 부스럼난 다리를 내밀며 애 이것 좀 짜줘 힘껏 응하었다. 어릿거리의 소년의 손이 채 와 닿기도 전에 소녀는 개가 죽어 넘어졌던 자리도 상관치 않고 뒤로 누우면서 아 아 하고 우선 간지러운 소리부터 질렀다.<sup>14)</sup>

작가는 이렇게 인간이 지켜야 할 근원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계를 충격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세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심과 모성의 변질과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3) 「갈대」, p.88.

14) 「갈대」, p.91.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최후의 것마저도 실종된 세계에 대한 비애감은 딸을 팔아서 돼지를 사야할 정도에 이른 「돼지계」에서 한층 고조된다. ‘외아들 죽는 건 봐두 낱알 타는 것은 보지 못한다’ 할 정도로 농사짓기만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무지하고 가난한 농민인 우점네는 가난 때문에 딸을 파는 것과 다름없이 결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돼지 사는 데 쓴다. 그러나 그 돼지마저 기우체를 위해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동물을 사기 위해 생명의 근원인 여자를 팔아야만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비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 작품들에서부터 파괴된 모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던 황순원은 이후의 작품 「왕모래」에서는 아들이 타락한 어머니를 목졸라 죽이는 것으로 응징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이처럼 모성이 철저히 부정되는 세계, 어머니의 모습이 악마에 다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작품집 『늪』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며, 그렇기에 그것은 극도의 부정성을 띠고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4. 어머니에게 안기기

황순원은 작품집 『늪』에서 악마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악마적이고 추한 것들을 한꺼번에 내세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가치들을 되찾기에 골몰하게 만든다.

황순원은 오직 모성으로 감싸여진 세계에서만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작가이다. 그러므로 모성을 잃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사생아의식에 사로잡힌 병든 인물들이 그려가는 『늪』의 세계는 기괴하고 추하고 죽음의 이미지만이 지배하는 세계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를 수

밖에 없도록 은 세상에 만연된 이 병증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모성으로 감싸임뿐이라고 애써 주장한다. 진형준은 황순원이 세상의 악을 인식한 후 그 극복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여성적 감싸기라고 한다.<sup>15)</sup>

황순원의 작품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모성은 삶의 가치와 의의를 상실한 허무의식과 죽음의식을 극복하게 만들며 그것은 결국 생명의식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여러 작품들에서 그려지는 불구적인 모성의 세계에도 불구하고 황순원의 작품들에서 모성성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명의 세계, 혹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감싸안는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의 세계로 그려진다.’<sup>16)</sup> 황순원이 그의 작품세계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모성의 문제에 끈질기게 집착하는 이유는, 모성은 곧 생명의 근원이라는 데 그의 생각이 닿아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모성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되찾게 되는 경우를 수다히 발견할 수 있는데, 작품집 『눈』에서도 「허수아비」, 「피아노가 있는 가을」, 「지나가는 비」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된다.

「허수아비」의 준근은 비록 죽음을 앞둔 병든 몸이지만 모성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려는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된다.

높은 하늘과 햇별이 준근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준근은 그곳에 주저앉고 말았다. 옆 도랑에 끈 썩은 물에 날개가 찢긴 잠자리 한 마리가 꼬리를 담그면서 날았다. 준근은 조용히 잠자리의 꼬리가 지어놓은 썩은 물의 약한, 그리고 둔한 파문을 지켜보면서 거리의 남숙에게 다기 온전한 여인이 되라고 하리라는 결정을 지었다. 먼 조밭에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sup>17)</sup>

비록 날개는 찢겼지만 알을 낳기 위해 썩은 물에 꼬리를 담그는 잠자

---

15) 진형준, 「모성으로 감싸기, 그에 안기기」, 『황순원연구』(문학과지성사, 1985), p.180.

16) 박해경, 「현세적 가치의 긍정과 미학적 결벽성의 세계」, 김종희 편, 『황순원』, (새미, 1998), p.101.

17) 「허수아비」, p.45.

리의 모성 행위는 그대로 준근과의 사랑을 위해 모성을 피임조절로 포기하고 있는 남숙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즉 준근은 모성에의 강한 인식으로 딸미암아 남숙으로 하여금 허수아비와 같은 자신을 떠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온전한 여인이 되라고 하리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준근은 남숙에 대한 애정이 깊음에도 모성에의 인식으로 인해 결국 애정을 포기하고 만다. 이렇게 모성적 생명력의 추구를 통하여 훼손되고 상실되었던 삶의 가치와 의의는 회복되고 정화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피아노가 있는 가을」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남편과 자식까지도 버리려 했던 종숙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마는 이유는 딸의 ‘엄마 무서’라는 한 마디 말에서 기인한다.

에는 팔딱 뒤루 몸을 움츠리면서 놀랜 눈으루 엄마 무서 하는 소리를 지르는게 아니겠어요? 저는 날 무섭다구 하면서 엄마라구 부른 애를 내려다보면서 사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얼굴을 하구 있었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운 어머니이자 무서운 아내인 나는 죽구말까까지두 생각했어요.<sup>18)</sup>

딸의 말은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어머니였으며 아내였던가를 철저히 인식하게끔 했다. 결국 종숙은 모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간신히 찾은 사랑을 포기한 채 애인이 치는 쇼팽의 장송소나타를 들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여자로서의 행복보다는 모성이 우선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는 비」에서 모델인 매는 사생아였는데 그녀 자신도 또 사생아를 낳아 공원에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사생아를 낳게 한 남자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젓가슴이 탄력이 없다는 말에 모델을 그만두면서부터 비로소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애가 어디서나 잘 자라기를 비는 마

18) 「피아노가 있는 가을」, p.125

## 음으로 바뀐다

후에 사생아의 어머니 자식 사이를 서투 알리구 싶지 않았기 때문예요. 애가 원망스럽기만 한 그때였어요, 그제 이걸 바라보며 원망을 따름이죠. 그게 이번 모델을 그만두면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이란 걸 느꼈어요, 이상해요 애가 어디서나 잘 자라길 비는 마음이 됐거든요. 그래 난 이 그림을 찢어버리기로 했어요.<sup>19)</sup>

이와 같이 황순원이 여성의 의미를 항상 모성적 의미로 대체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황순원의 작품에서는 자칫하면 본능적 에로티시즘에 함몰될 수 있는 내용이 고결한 주제로 승화되어지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sup>20)</sup> 즉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들의 여인에 대한 사랑은 여체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사랑의 대부분이 모성으로 환원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성애는 절대성을 띠면서 작가 황순원이 그의 전 작품을 일관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성별화(聖別化)된 사랑의 성격을 띤다.'<sup>21)</sup>

가족관계의 해체, 윤리의식의 무너짐을 목격하면서 황순원은 제일 먼저 감싸주어야 할 대상으로 어린아이들과 동물들에게 관심을 쏟게 되며, 이후의 작품세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린아이의 세계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유년의 세계를 '악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꿈과 순진한 세계'<sup>22)</sup>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위안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각을 얻게 된다. 작가는 비정한 세계에서 동심이 상처받고 훼손되어 가는 실상을 적나라

19) 「지나가는 비」, p.102.

20) 전영태, 「이청준 창작집과 황순원의 단편소설」, 『광장』, p.335.

21) 양선규, 『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19.

22) 이재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479.

하게 노출해 보임으로써, 이 세계의 결핍상을 상쇄할만한 아름다운 가치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것은 사랑과 생명,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모성이다. 이러한 탐구를 보여주는 작품의 예로는 「닭재」, 「갈대」, 「사마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나 연약한 동물들이 파괴적이고 타락한 현실 속에서 상처를 입고 망가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은 작품 속에서 부정적 현실의 비극성을 더욱 예각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황순원 소설에서 어린아이와 동물과 같은 여리고 순수한 삶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이 흔하게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현실의 어둠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이며, 이와 아울러 역설적으로 모성으로 안기기를 갈구하게 만드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지금까지 황순원 소설의 출발지점을 보여주는 작품집 『눈』을 모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작품집에 수록된 13편의 작품들의 특징은 결핍, 무기력, 질병, 죽음 등의 어둠과 황폐한 세계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작가의 이러한 부정적 세계인식은 주인공들의 불안과 허무의식으로 발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황순원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며, 이 사랑은 모성애와 일치한다. 결국 『눈』의 전 작품들은 죽음으로 가득찬 세계에서 사랑과 생명을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모성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도정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정은 모성이 결핍된 자리를 극도로 추하게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모성을 향한 그리움이 더더욱 강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모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근본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일관하고 있는 황순원의 작품들을 분석해 나갈 때 반드시 부딪치게 되는



문제는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당대 상황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박혜경은 황순원의 모성은 자신이 던져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의 양식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그러한 역사적 상황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의 차원에서 구체화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 황순원의 작품들은 대부분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된 삶에 대한 어떤 치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려 할 뿐<sup>23)</sup>이라고 보았다. 작품집 『늬』에서도 작가의 관심사는 작품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일제말기의 시대적 어둠을 그려내는 것에 있지 않았고 근원적인 가치의 파괴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상처입고 파멸해 가는 인물들의 비극을 부각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황순원의 작품성향은 때때로 ‘역사적 사건, 시대의 분위기 등과는 상관이 없는 진공관 속의 인물<sup>24)</sup>을 그려낸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작가가 시대의 상황성에 매달리지 않고 진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를 들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김중희 편, 『황순원』, 새미, 1998.  
 남태제, 『황순원 문학의 낭만주의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양선규, 『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동하, 『물음과 믿음 사이』, 민음사, 1989.  
 이부순, 『황순원 단편소설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장현숙, 『황순원 초기작품연구—단편집 『늬』를 중심으로』, 『경원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7집, 1986.

23) 박혜경, 앞의 글, p.102.

24) 조남현, 『황순원의 초기작품』, 『문학의 정신사적 자취』(이우출판사, 1984), p.244.

전영태, 「이청준 창작집과 황순원의 단편소설」, 『광장』, 1980.  
조남현, 『문학의 정신사적 자취』, 이우출판사, 1984.  
황순원전집 1, 『눈/ 기러기』, 문학과지성사, 1985.  
황순원전집 12, 『황순원연구』, 문학과지성사, 1985.

## Abstract

### Want and Longing, Whang, Soon-Won's *The Swam*

Jeoung, Su-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hang, Soon-Won's first works *The Swam* with the critical mind that motherhood can be clarified the intrinsic attribute of his literature. Through *The Swam*, Whang, Soon-Won delineates closely various aspects of human's life suffering from want of motherhood. The characters appeared in 13 works of collected on this works are always sick in mind and body, and love they are making unbalanced and distorted. If we try to clear up the cause, there is always malformed relation with motherhood. So, in Whang, Soon-Won's novels, love is closely connected with motherhood, this is a specific character of Whang's literature. Besides, the mothers appeared on *The Swam* are not affectionate but devilish lost her motherhood and the world living together with these mothers outrages and ugly images. However the author's aim of putting up the front these negative image, can be regarded as expressing deeply longing for mother with absolute beauty. In the long run, through this works, Whang, Soon-Won is very emphatic that wrapping oneself in motherhood is the only way to protect intrinsic value of human from absurd world.